

특·별·기·고

농촌여성93%가 출산 일주일내 일해

전남 순창지역 임신·출산 실태조사

병원갈 돈으로 고기나...

출산은 젊은층에서 점점 아이를 적게 낳고 있었고, 분만장소도 병원에서 분만하는 경우가 늘었다. 그러나 이 조사결과에서 보듯 응답자 전체 중에서 집에서 아이를 낳은 사람이 72.9%나 차지했고 병원이 13.6%였다. 29세이하의 젊은층에서조차도 병원분만은 56.3%에 불과하고 집에서 분만한 사람이 12.5%나 되었다. (표2, 3참조)

이러한 경향에 대해 ‘옛날에도 집에서 잘만 낳았다’는 어른들 생각에다, 경제형편상 3~8만원을 주머니에 쥐고 병원에 달려가야 하는데 이것이 굉장한 것으로 머리에 남아 ‘집에서 낳고 그 돈으로 고기 사먹고 조리나 잘하지’ 하게 되니 병원출산이 아직은 현실적 문제가 있다”고 한 젊은 여성농민은 말했다.

그러나 조리를 잘하려고해도 농촌현실상 일은 널려있고 일 손은 없기 때문에 편히 누워만 있을 수 없게 되어, 아기를 낳은 당일(8.0%), 다음 날(14.7%), 3일 만에(43.9%), 일주일이내(26.2%)에 일어나야만 했다. (표4 참조)

순창농민상담소 이태영 목사는 “88년 3~5월에 ‘모내기철의 여성농민 노동 실태조사’를 했을 때 응답자 130명 중, 모내기철 출산경험자는 59명이었고 이 중 48명(81%)이 출산 후 3일 이내에 논일을 다시 시작했다는 충격적 사실에 접하게 되어 자세한 조사를 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이번 조사 동기를 밝혔다.

과다노동, 영양부족 많아

또한 산모가 산후 빨리 일어나게 되는데는 생활한 경제 요인과 함께 ‘누가 몸조리를 도왔는가’라는 사실도 영향을 미쳤다. 응답자의 50.4%가 시댁식구가 몸조리를 도왔다고 대답했으며 다음으로 친정식구(28.1%), 남편(12.7%)의 순이었는데, 산후조리가 비교적 긴 사람은 대부분 친정식구가 도와준 경우였다. (표5 참조)

임신기간 중 ‘영양제 복용을 하였는가’라는 질문에 복용한 사람은 3.4%, 안한 사람은 96.6%이었고, 한 번도 의사의 진료를 받지 않은 임신여성이 64.6%, 1회 10.1%, 2회이상은 불과 25.3%로 나타났다. ‘출산 후 건강회복을 위하여 약을 복용했는가’라는 질문에는 한약복용(19.6%), 담방약(16.8%), 영양제복용(1.1%), 아무 것도 안 먹었다는 응답자는 60.4%나 되었다.

‘지금 가장 아픈 곳은 어디입니까?’라는 질문에 총 응답자 중 5백18명이 아픈 곳을 호소하였고, 그 중에서 허리(32.0%), 무릎(16.6%), 다리(13.5%), 머리(10.8%), 어깨(5.8%)순으로 나타났으며, 빈혈(2.5%), 위장(2.1%) 등 특정부위의 통증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몸이 아프다고 대답하여 도시지역에서 고혈압, 당뇨 등 성인병의 비중이 높은 것과는 대조적으로 농촌여성은 과중한 노동과 영양부족·산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오는 병이 많았다. (표6 참조)

인공유산 비율 높다

농촌여성의 건강을 해치는 또 하나의 큰 요인으로 유산을 들 수 있다. 이번 조사 응답자 중 40명(71.1%)가 자연유산 경험자이고 그 이유는 무리하게 일을 해서(62.5%) ‘원래 몸이 약해서’(30.0%)로 들고 있어, 주로 먹지 못하고 일을 많

‘순창지역 여성농민의 임신·출산과 건강과의 관계에 대한 실태조사 보고회’가 지난 8월 10일 순창 해광교회에서 지역주민과 관계자 50여명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이날 보고된 내용은 농촌 여성들의 임신·출산이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한 것으로 총응답자의 67%가 아이를 낳은 지 3일만에, 26.2%가 7일 이내에 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93%의 농촌여성이 출산 일주일 이내에 일을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또 응답자의 95%가 허리, 무릎등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그 이유로는 일을 너무 많이 해서(64.7%), 산후조리를 못해서(20.8%) 영양부족(6.0%) 순으로 나타나 여성농민들의 고된 생활과 열악한 건강상태를 엿볼 수 있었다.

이번 실태조사는 88년 12월~9년 3월에 걸쳐 순창농민상담소가 순창군내 9개면 35개 자연부락을 대상으로 부락의 여성농민 35명을 조사자로 선정, 3차에 걸쳐 ‘조사의 의의 및 요령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임신·출산 및 자연유산·인공유산과 건강에 대한 조사 설문지를 38항문으로 만들어 호별방문으로 응답하게 하였다.

응답자는 총 5백65명이었으며 내용에 대한 통계·분석은 낙태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는 전주 새생명 사랑회가 89년 4월~6월에 걸쳐 수고하였다.

이에 여성신문에서는 순창여성농민을 통해 여성농민 전반에 대한 건강실태를 널리 알리는데 의의를 두고 그 조사결과를 게재코자 한다.

이 한 때문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원치 않는 임신을 처리하는 인공유산을 경험한 여성은 181명(32%)으로 자연유산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높은 비율이다. 도시지역의 53%에 비하여 32%는 적지만, 인공유산 후의 후유증은 상당히 심각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표1 참조)

인공유산 경험률을 보면 부인과 남편의 학력이 높을수록 인공유산 경험률이 높았고, 경제적 부담때문에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경험률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공유산을 한 이유로 단산(45.3%)이 가장 높고, 경제적 이유가 27.6%나 되어 피임에 대한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표7 참조)

또 여성농민의 인공유산에 대한 인식도 해도 좋다는 경향이 반을 넘고 있었다. ‘인공유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대해 ①터울조절, 가정형편, 남자 아이를 원하는 경우 할 수 있다. (61.1% 총565명 중) ②자유롭게 할 수 있다. (15.8%) ③절대해서는 안된다. (19.8%) ④잘모르겠다(3.4%)로 응답했고 인구조

절을 위해 해도 좋다고 대답한 경우도 47.8%(총 565명중), 경제적 이유로 해도 좋다는 58.9%, 딸이 혼전임신을 한 경우 유산시키겠다는 68.1%로 응답하였다.

남아선호, 유산 더 부추켜

원치 않는 임신으로 아이를 낳은 적이 있는 여성은 565명 중 265명(46.9%)이었는데 그 이유로는 ①인공유산 시기를 놓쳐서(40.8%) ②유산시키길 비용이 없어서(30.9%)로 나타났으며 아이 생명이 귀중해서는 불과 4.2% 11명으로 나타났다.

‘아들을 낳기를 원하는데 초음파 검사결과 딸이라고 판명이 났다면?’에는 ①인공유산시키겠다(46.9% 265명) ②섭섭하지만 낳겠다(32.7% 185명) ③모르겠다(13.5% 76) ④상의한 후 결정하겠다(6.9% 39명) 순으로 나타나 남아선호도가 인공유산을 부추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공유산 전 상담자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대부분 ‘남편과 상의한다’(74.6% 181명 중) ‘스스로 결정한다’도 (18.2%

<표 1>

부인연령	인원수 (%)	평균출산아수	인공유산 경험자수	조사지역(응답자)
24세이하	11 (1.9%)	1.25명	2(18.2%)명	팔덕면(178명)
25~29	37 (6.5%)	2.56명	9(24.3%)명	유등면(109명)
30~34	71(12.6%)	3.44명	20(28.2%)명	풍산면(74명)
35~39	92(16.3%)	3.91명	31(33.7%)명	구림면(72명)
40~44	86(15.2%)	4.85명	30(34.7%)명	적성면(43명)
45~49	102(18.1%)	5.21명	47(46.1%)명	금과면(38명)
50~54	94(16.6%)	5.53명	29(30.9%)명	동계면(30명)
55~59	67(11.9%)	5.89명	12(18.0%)명	쌍치면(72명)
60세이상	5(0.9%)	6.12명	1(20.0%)명	인계면(4명)
계	565명(100.0%)		181명	9개면(565명)

<표 2> 어디에서 아기를 낳으셨습니까?

부인연령	병·의원	보건(지)소	조산소
29세이하(48명)	27명(56.3%)	11(22.9%)	4(8.3%)
30~39(163명)	38명(23.3%)	22(13.5%)	6(3.7%)
40~49(188명)	8명(4.3%)	16(8.5%)	5(2.7%)
50~59(161명)	4명(2.5%)	8(4.8%)	4(2.5%)
총인원수중(565명)(100%)	77명(13.6%)	57(10.1%)	19(3.4%)

<표 3> 집에서 낳은 경우,누가 아기를 받았습니까?

가정분만시	조산자	인원수(399명)	백분율
의사	산파	10명	2.5%
산파	보건의원	127명	31.8%
보건의원	동네사람	12명	3.0%
동네사람	혼자서	50명	12.5%
혼자서		36명	9.0%

33명) 적지 않았으면 남편의 태도에서는 ‘찬성했다’가 53.3% ‘마음대로 하라’가 20.7%로 긍정적 반응을 보였으며 ‘반대’는 18.5%로 나타났다.

유산 후유증 49.7%

인공유산을 실제로 행해주는 의사의 태도도 중요한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나는 누가 원할지라도 치명적인 약은 투약하지 않을 것이며 그런 일에 협조도 하지 않겠다. 또한 어떤 여인에게도 유산시키는 약은 투약하지 않겠다.”

이 말은 히포크라테스의 선서 중의 한 부분으로 의사로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해야하는 맹서이다. 그러나 ‘인공 유산전 의사의 태도는 어떠했는가’에 ①아무 말없이 수술해 준 것이 74.6%(181명 중 135명), ② 큰 부작용이 없으니 해도 된다(16.0% 26명) ③시기가 너무 늦었으니 위험하다고 하였다(6.6% 12명) ④인공유산은 몸에 해로우니 피하라고 하였다.(2.8% 5명)

위에서 보듯 인공유산을 경험한 181명 중 피하라고 권한 경우는 5명에 불과했고, 이러한 의사들의 태도가 인공유산을 쉽고 간단하게 생각하도록 하는데 결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인공유산 후 후유증을 경험한 경우도 49.7%(90명)이나 되어 하혈, 복통, 요통 등을 경험했다.

이렇게 출산 여건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농촌여성들은 딸만 두었다면 아들을 보기 위해 계속 낳겠다고 71.3%(403

<표 4> 아기를 낳은지 몇일만에 일어나셨습니까?

산후조리기간	당일	다음날	1주일 이내	2주일 이내	1달 이내	1달 이상
수(565명)	45	83	148	33	7	1
%	8.0%	14.7%	26.2%	5.8%	1.2%	0.2%

<표 5> 산후조리를 도와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도와준사람	친정식구	남편	없었다	이웃	기타
수(565명)	159	72	32	13	4
%	28.1%	12.7%	5.7%	2.3%	0.7%

<표 6> (아픈곳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유	인원수(518명)	%
원래 병이 있다	11명	2.1%
산후 몸조리를 못해서	108명	20.8%
사고를 당해서	7명	1.4%
마음고생을 많이 해서	22명	4.2%
남편에게 맞아서	2명	0.4%
영양부족 때문에	31명	6.0%
기타	2명	0.4%

<표 7> 인공유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공유산이유	인원수(181명)	%
더 낳고 싶지 않아서(단산)	82명	45.3%
경제적 이유로	50명	27.6%
약물복용으로 인해 기형아가 염려되어서	20명	11.0%
아들을 위해서	12명	6.6%
혼전이었기 때문에	12명	6.6%
터울조절을 위해서	5명	2.8%
기타	5명	2.8%
건강이 악화되어서	3명	1.7%
딸을 위해서	2명	1.1%

명) 아니다 22.7%로 나타나 강한 아들 선호사상을 보여 주었다.

건강보호, 제도적 뒷받침을

이상 농촌 여성의 임신·출산과 건강 유산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서 67년 이후 정부가 농어촌 모자보건을 실시하고 있다고는 하나 임신, 출산과정에서 보호받지 못하고,아직도 전북내 3개군 순창·임실·장수는 제왕절개를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렇게 주위 생활환경과 경제적 여건이 여성농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은 결코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다. 다만 이 조사결과가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을 뿐이다.

그러나 여성 농민이 농촌일손의 핵심으로 떠 밀려갈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 집안 일이다 임신·출산까지 짊어지고 낙후된 환경 속에 살아야만 하는 것이 그들만의 문제로 무관심할 것인가. 적어도 임신·출산·산후조리는 철저히 보호되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번 조사가 ‘새벽부터 시작해서 손끝이 안 뵈는 캄캄한 밤중까지 일하며 앉으면 팔다리가 쭈시고 온 몸이 안 아픈데가 없는 참말로 내 몸뚱아리가 아닌 것 같다’는 여성 농민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 농·어촌 여성들을 위한 자료조사가 다각적으로 실시되어 이번 조사에 비전문적인 면과 현상과 약에만 그친 점을 보완할 수 있었으면 한다. <안경례/전주지사장>